

회의 참가기 : 국제의학사서대회를 다녀와서

민 세 영
(의학분관)

회의 참가기를 재미있게 써 달라는 편집위원의 부탁이 있긴 했지만 유서 깊은 ‘도서관보’에 누가 될까봐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회의 개최지가 한반도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아메리카였기에 회의에 관한 학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그 곳에서 보고 들은 문화와 느낌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회의 개요

제9회 ICML은 IFLA의 Section of B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Libraries와 WHO 산하의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enter on Health Sciences Information이 주관하여 2005년 9월 20일 Opening Ceremony를 시작으로 4일간 Brazil의 옛 수도인 Bahia주의 Salvador에서 개최되었다.

ICML(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ibrarianship)은 1953년 London에서 개최된 회의를 시작으로 1980년부터는 매 5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이번 9회 대회는 Latin America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이다. 이를 기념하여 제7회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ngress on Health Sciences Information이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전 세계 의학정보와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서, 의료인들 약 1,300여명이 모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태숙 과장님과 본인을 비롯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소속 회원 총 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의 테마는 ‘Commitment to Equity’로 보건, 의료에 관한 분야에 모든 지식과 정보가 보급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었으며, Plenary Session, Contributed Papers Session, Poster Session으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ICML9는 의학이라는 전문 주제 분야에 관한 대회 참석이므로 구체적인 주요 프로그램과 논제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Program 소개

2.1 Panels

Panel 1 : How to achieve information for all?

Panel 2 : Health related decision : how to balance evidence and democracy?

Panel 3 : eHealth and ePatient : a new health culture?

Panel 4 : Health libraries

Panel 5 : Scientific communications - Open Access

Panel 6 : Information technologies - empowering user to publish and to access

2.2 Contributed Paper Session, Poster Session

- Health and Medical Library development and innovation
-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Learning organizations
- Scientific Communication & Electronic publishing. Open access, open archives
- Patients and other health care consumers
- Virtual libraries & virtual communities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Evidence-based health care and evidence based librarianship
- Information policy
-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therapies
- Virtual libraries & virtual communities
- User studies

3. School of Medicine of UFBA 방문

Federal University of Bahia at Terreiro of Jesus - Pelouinho

- Project for the Memorial of the Brazilian Health Library
- Medicine Memorial
- Photographic Exhibit

4. 살바도르에 도착하기까지

해외여행이 잦아지긴 했지만 여행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는 거의 보기 어렵고 가기 힘든 남미였으므로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한 곳은 이름도 생소한 목적지, 살바도르! 2005년 9월 19일 3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LA, 칠레의 산티아고, 브라질의 상파울로를 거쳐 회의 개최지인 살바도르에 도착하였다. 브라질로 직접 가는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비행시간만 무려 30시간이 소요되었고, 네 번을 갈아타고 도착해 보니 이틀이 지나 있었다.

LA까지만도 11시간 정도인데 LA에서 다시 갈아탄 LAN 비행기에서 갑자기 세뇨라...세뇨르...하는 스튜어디스의 말이 귀를 울렸다. 어? 영어가 아니네...순간 LAN이 미국 비행기인줄 알았는데 LAN은 CHILE 비행기로 강한 어조의 낭랑한 스페인어가 마구 쏟아졌다. 드디어 대한항공을 벗어나 우리 7명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남미 대륙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4시간을 꼬박 넘어 무려 30여 시간을 공중에서 밥을 먹고 자고 생활하자니 입속이 얼얼해지려고 했다. 평생 먹을 기내식을 한꺼번에 먹는다면 일행은 처음에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 나중엔 엉망이 된 신체리듬과 시차에 계속 앓아서 자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하기 위한 일념으로 버티며, 준비해 간 세미나 자료를 열심히 보았으나 점점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장시간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정말 오기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살바도르에서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숙소부근의 바가스 거리에 있는 일본식당에 들러, 배추를 소금에 구워서 만든 반찬으로 김치를 대신하며 남미에 여정을 풀었다.

5. 회의에 참석하며

드디어 회의 첫날, 회의장소는 Bahia Convention Center로 우리나라 COEX를 상상하며 들른 곳은 놀랍게도 조명도 흐린데다 네모 모양의 공장건물을 연상케 했다.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컨벤션센터의 회의장을 찾아 등록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피부색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상을 한 모습에서 국제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생경함을 맛보며 우리 일행은 줄을 서서 동시통역기를 받아 들었다. Portuguese, Spanish, French, English 중 당연히(?) English로 채널을 맞추며 회의장에 들어섰다. 남미에서 개최하는 탓인지 발표자들의 거의 90%가 남미 사람들로써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부터 동시 통역을 하는 탓에 영어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툭툭 끊겨서 들리는 바람에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아한 포즈는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패널이 끝난 후 전통악기를 가지고 브라질 민속음악을 연주하며 세미나장과 참가업체들이 마련한 부스를 도는 Opening Ceremony를 하였다. 조용한 회의장에 갑자기 벌어진 Ceremony였지만 그들의 문화인지 이들이 지나가는 동안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흥에 겨워했다. 나는 물론 이 순간에 카메라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한 패널을 다시 듣고 드디어 점심시간, 그러나 우리가 낸 무려 \$200의 참가비 속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관례대로 식사는 당연히 제공하는 줄 알고 주최 측에 알아보았으나 몇몇 식당으로 운행하는 셔틀만 알려줄 뿐이었다. 부랴부랴 해안가에 위치한 양 많고 값싼 식당을 찾아 예산에 없던 식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회의 둘째 날, 원격진료(e-Health, telemedicine)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앞으로 원격진료시대를 맞이하여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스위스의 살라 만델 등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각종 ME (medical engineering)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진료의 효율성을 높여 갈 것이라는 유익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가려는 욕구로 인해 어느 학문분야보다도 빠른 발전 속도와 의학정보의 방대한 증가로 인해 정보를 얻기 위해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남미, 아프리카를 위하여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Open Access의 내용이 무엇보다 많이 다루어졌다.

5.1 Cultural Activity

둘째 날 회의가 끝나고 저녁 8시 30분에 Cultural Activity가 있었는데 Tereza Batista Square에 있는 Salvador의 Historical Center인 Pelourinho에서 Banda Unskarai Concert가 열렸다. 입장은 등록할 때 나누어준 초청장이 있어야 했는데 일행 중 남자 회원이 그 중요한 티켓을 못 찾아 통사정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의리가 없긴 하지만 일단 6명만 입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참가 명찰도 있으니 그냥 통과시켜 주었을 텐데 US \$40을 내라며 절대불가였다. 야외 공연장으로서 의자도 하나 없는 어느 가정집 정원 같은 곳에서 맥주와 먹을 것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우리 일행은 어느 국적 모를 참석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건배를 하였다. 계속 밀려드는 입장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드디어 본격적인 콘서트가 시작되자 참석자 모두가 흥겹게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의자를 찾았던 우리가 진짜 이방인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잠시 후 초청장을 챙기지 못하여 들어오지 못했던 남자선생님이 보이는 게 아닌가? 입장을 거부당해 다른 회원들을 기다릴 셈으로 인터넷 룸을 찾는데 경찰을 만나 동행하다가 ICML9 행사관계자가 추가입장을 배려해 주었다고 한다. 낮선 거리에 혼자 버려지게 했던 문제의 초청장이 귀국 후 가방에서 얄밋게 나타났다고 한다. 현란한 조명과 밴드에 맞춰 열창하는 가수들의 노래 속에 관중들은 온 몸을 흔들며 분위기에 흠뻑 젖어 밤하늘을 울리는데 수적으로 열세한 우리 동양인도 맥주를 마시며 서로 눈을 맞추며 웃고 춤을 추었다. 밤새 끝날 것 같지 않은 Cultural Activity를 뒤로 하고 우리 일행은 아쉽게 숙소로 향했다.

5.2 도서관 복원 현장 견학

회의 셋째 날, 오전 세션을 듣고 의학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이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몇몇 일행은 Shuttle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살바도르의 거리를 바라보며 40여분을 갔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거대한 국토와 1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브라질은 한 때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높았었다고 들었는데 IMF를 겪으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그런지 가는 길 내내 모든 건물이 페인트가 벗겨진 채 몹시 낡은 모습이었으며 언덕 곳곳에 빈민가들이 늘어서 있었다.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금융 중심지인 상업도시 상파울로는 덜하겠지만 옛 고도인 살바도르만의 풍경인지도 모르겠다.

1700년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종교가 가톨릭교로서 곳곳에 고풍스런 성당 건물이 눈에 띄었다. 광장을 가로질러 방문한 School of Medicine of UFBA(Federal University of Bahia at Terreiro of Jesus - Pelouinho) 입구에 웬 공사장 인부 사진이 걸려 있어 의아해 했다. 다시 한번 도서관이란 현판을 보긴 했으나 점입가경! 흰 회가루가 푹푹 날린 채 높은 천장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다. 복도 옆으로 늘어선 작은 방에서는 하얀 가운과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책벌레로 인해 작게 구멍 뚫린 곳을 메운 후 작은 솔로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다. 너무 정성들여 고서를 복구하는 모습에 감탄하여 사진을 찍다보니 한 칸에 삼성컴퓨터가 반갑게 눈에 들어왔다.

또 뭔가 있겠지 하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리모델링하는 공사 현장만 있을 뿐 안내하는 가이드도 영어로 조금 하다가 무슨 배짱인지 포르투갈어인지 스페인어를 사용하였다. 브라질의 도서관을 보고자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공사현장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런 곳을 왜 방문지로 넣었는지 궁금해 하며 뭔가 나오리라는 기대감에 설명을 듣다 말고 미로를 둘러보았으나 먼지 가득 쌓인 철판이와 고서만이 눈에 띄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를 찾아보니 바이아 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도서관으로, 1985년 UNESCO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으로서 콜로니얼 건축양식인 만큼 정성스럽게 복원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잘 된 곳만을 견학하던 우리의 문화와는 진짜 색다름을 느꼈다.

5.3 회의 개최지 : 브라질의 옛 고도 살바도르

회의 개최지인 Salvador는 브라질 Bahia 주의 주도로 대서양변 해안에 위치한 도시이며, 낮 기온이 27도 정도이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도시라고 한다.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12시간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가능하며, 통화단위는 Brazilian Real (R\$)을 사용한다.

브라질은 처음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되어 식민지 시대를 겪어 흑인과의 혼혈이 많으며, 남미 대부분이 스페인 식민지로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바로크식 식민지풍의 성당과 민가, 요새 등이 있으며 옛 도시로 흑인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음식도 향이 아주 진하여 제대로 먹지 못하였지만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 그들만의 전통 문화를 맛볼 수 있었던 인상 깊

은 도시였던 것 같다. 딸 선물로 글로벌 시대를 설명할 겸 특이해서 아주 좋아할 것 같은 레게머리를 한 흑인 인형을 샀는데 귀국 후 피부색이 낯선지 아이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서랍 속에서 잠자게 되었다.

6. 리오 데 자네이로, 이과수 폭포

회의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 먼 곳까지 왔으니 훌가분한 마음으로 브라질에서 유명한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이 있는 세계적 미항이라는 리오 데 자네이로에 들렀다.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으로 인해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날씨변화가 무척 심하여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말에 구름이 비껴갈 때 재빨리 그 웅장함을 눈에 담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야자수가 우뚝우뚝 서있는 코파카바나 해변의 고운 백사장을 거닐고 싶었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을 쓰고 근처를 맴돌았다.

브라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삼바축제는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를 위해 스탠드가 있는 퍼레이드장을 지었다고 하며, 축제에 나가기 위해 1년 내내 연습하는 삼바학교도 있다고 한다. 매년 2-3월에 열려 그 시기가 관광객이 가장 많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개 국경이 접해 있는 이과수폭포까지 관광을 한다고 한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리오에 한 개만 있다는 삼바공연을 보러 갔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피부색깔과 언어는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바쇼를 감상하는 그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몇몇 팀이 나와 열정적인 공연을 하였으며 마지막 프로그램에 슈퍼 아나운서가 각국 언어로 나라를 소개 한 후 그 나라 사람들이 무대로 올라가는 순서가 있었다. 남미에서 두뇌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듯 우리나라의 소개가 일찍 이어져 우리 세미나 팀과 두세 곳에서 올라온 한국 관광객 팀이 무대위로 올라가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때 눈물이 핑 돌며 감회가 새로웠다.

우리나라 교민들은 사탕수수 농장 이민을 간 이후, 부지런함과 명석함으로 상업도시 상파울로에서는 의류도매업으로 거의 대부분 부자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의 마지막 방문지, 세계에서 가장 큰 이과수폭포를 보러 갔다. 날씨가 흐려 넓게 펼쳐진 장관을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지만 잠시 후 안개비가 거치고 나타난 장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세계의 폭포를 다 모아 놓은 듯 너비 5km가량

에 펼쳐져 있으며 낙차 100m가 넘는 웅장한 스케일에 압도되었다. 누군가 말하길 나이가가라 폭포를 먼저 본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나이가가라 폭포만으로도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과수 폭포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날 아르헨티나 편에서 기차를 타고 숲속으로 가서 강가에 놓여진 긴 다리를 지나 도착한 곳은 이과수 폭포 중 최고의 경관인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곳으로 떨어지면 바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공포의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날 인디언들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소리도 없이 사라져서 이런 별명이 지어졌다고 한다. 엄청난 폭포 소리에 가슴 벅차하며 언젠가 가족들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꿈을 간직한 채 떠나왔다.

7. 철새는 날아가고(El Condor Pasa)

남미에서의 마지막 여행지인 페루! El Condor Pasa의 유래를 살펴보면 1913년에 작곡한 오페레타 "콘도르칸키"의 테마 음악으로 마추피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잉카인들의 슬픔과 스페인 통치하의 페루에서 1780년에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반란의 중심인물인 콘도르칸키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노래라고 한다. 이런 배경을 모른 채 El Condor Pasa라는 페루 민요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본고장에 와서 이렇게 듣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세월을 거슬러 잉카문명에 들어가는 듯한 이 낯설고 작은 도시는 머리 속 깊은 곳에 존재하였으나 꾸스꼬(Cuzco: 3,399m)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캄캄한 불빛 사이로 보이는 LG와 SAMSUNG의 큰 광고안내판이 날 현실로 끌어내었다. 아! 이렇게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한국의 기업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꾸스꼬의 옛 모습 그대로인 건물과 좁은 골목들 사이를 누빌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티코가 택시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어찌나 많았던지 80%는 모두 이름도 유명한 티코였다. 꾸스꼬는 인구 26만 명의 도시로 잉카문명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관광도시이다. 한국을 떠나기 전 고산병(mountain sickness : 기압이 높고 공기 중 산소농도가 낮아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세)을 우려했었는데 역시 몸이 제일 약해 음식도 잘 먹지 못했던 한 여자 회원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삭사이와만(Sacsayhuaman:3,900m) 유적지에 오르지 못하고 차에 누워 있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약간 어지럽다가 곧 적응이 된다면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여 유적지를 아주 천천히 감상하였다. 저 멀리 말로만 듣

던 안데스 산지의 만년설이 보이고, 우리를 바라보던 작고 까만 피부를 가진 인디인들의 눈망을 속에 잉카 제국의 향기가 그대로 배어 있는 듯했다.

마추피추(Machu Picchu:2,280m)는 아주 높은 산봉우리에 지어진 공중도시로, 잉카인들이 신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산 정상에 계단식으로 된 농경지, 도심, 종교지역의 세부분으로 되어 있었으며, 현대에 와서 일부 무너진 부분을 다시 쌓은 돌은 잉카시대 때 정교하게 쌓은 석벽과 너무 비교되어 안타까웠다.

태양신에게 제를 지내던 곳에 제단으로 된 돌이 있었는데 닳을까봐 관광객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유적지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지상에서의 모든 허물을 벗고 거룩한 이탈을 시도하는 듯한 초월적 순간처럼, 그 시대 잉카인의 모습으로 들으니 El Condor Pasa의 음악이 참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잉카시대의 잃어버린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귀중한 유적지인 마추피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8. 맺음말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편리한 문명이란 이름 속에 갇혀 있다. 마야, 잉카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 피는 지금껏 이어져 끓어오른다. 그래서 더욱 그 뜨거움, 격렬함에의 동경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원시적 자유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나는 어느새 가슴 한 구석에 그 먼 옛날 자연에의 순수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풍부한 지하자원, 맛있는 열대과일과 소고기를 부위별로 구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아낌없이 주었던 음식문화와 풍성한 자연환경과 광활한 땅을 가진 남미대륙의 무한한 가능성과 바닷가 샤워장에서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던 흑인의 여유로움을 뒤로 하고 남미 여행기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남미의 여러 모습들을 아울러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의학사서대회를 다시 한번 회고하며 의료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의료 소외지역의 질병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료, 보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인류의 기본권을 누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공감하고, 문명의 유적지로서 이들의 자연과 문화를 같이 즐겼던 축제의 장이었음을 확인하며 이 글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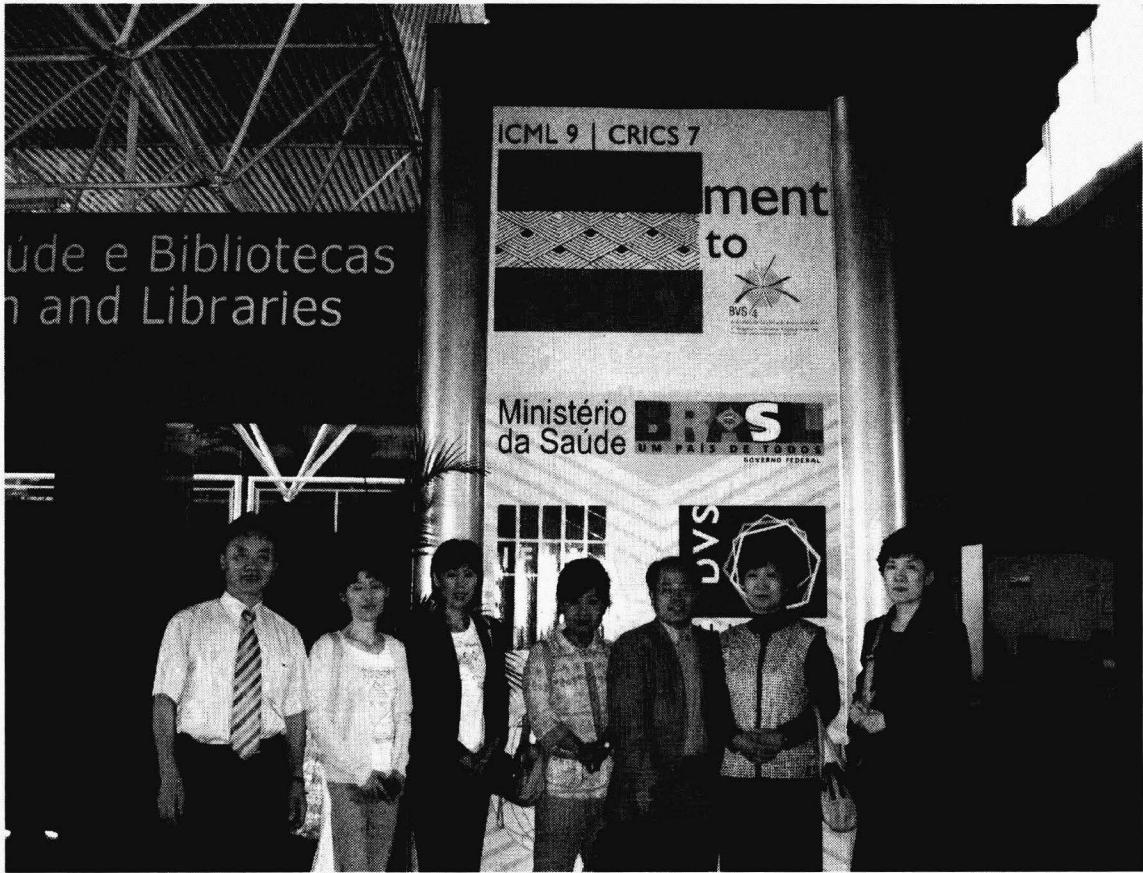


사진 1 : Bahia Convention Center 회의장 입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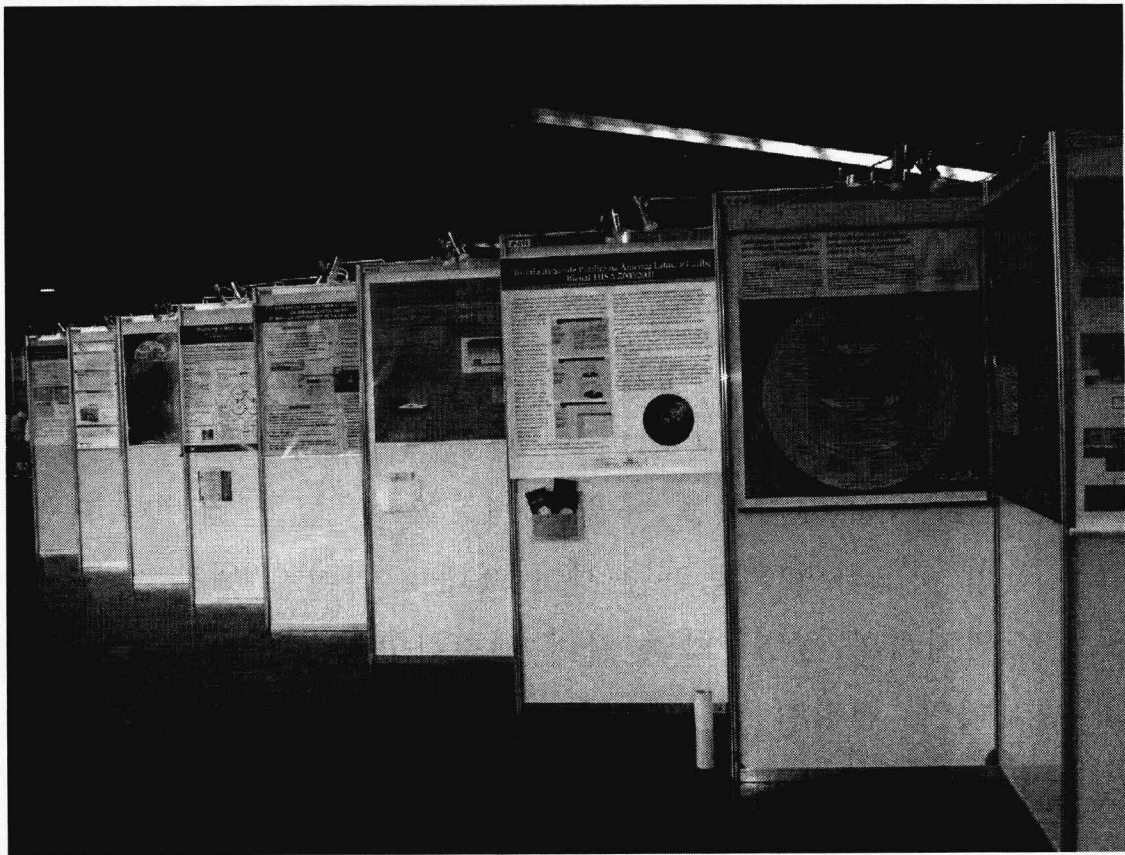


사진 2 : Poster Session



사진 3 : School of Medicine of UFBA 복원 전



사진 4 : School of Medicine of UFBA 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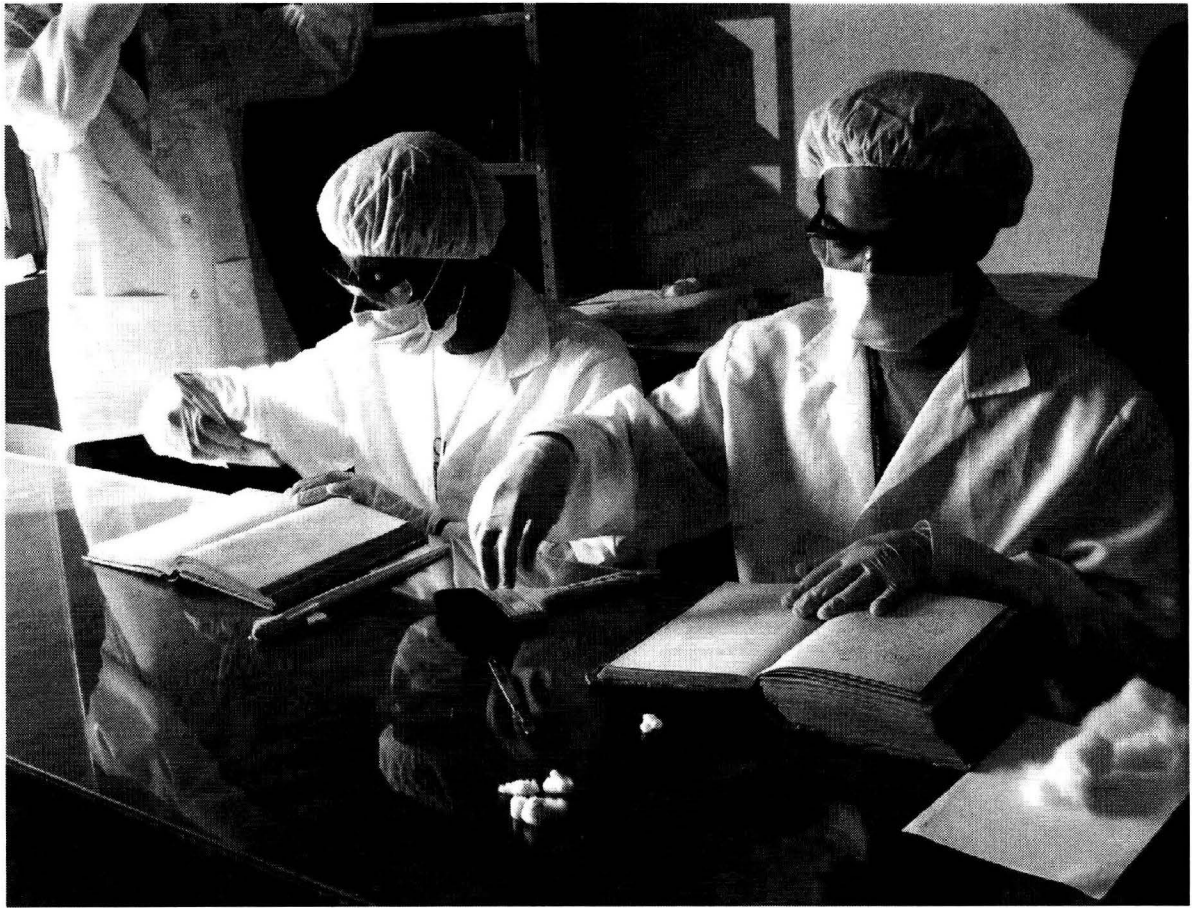


사진 5 : 고서 복원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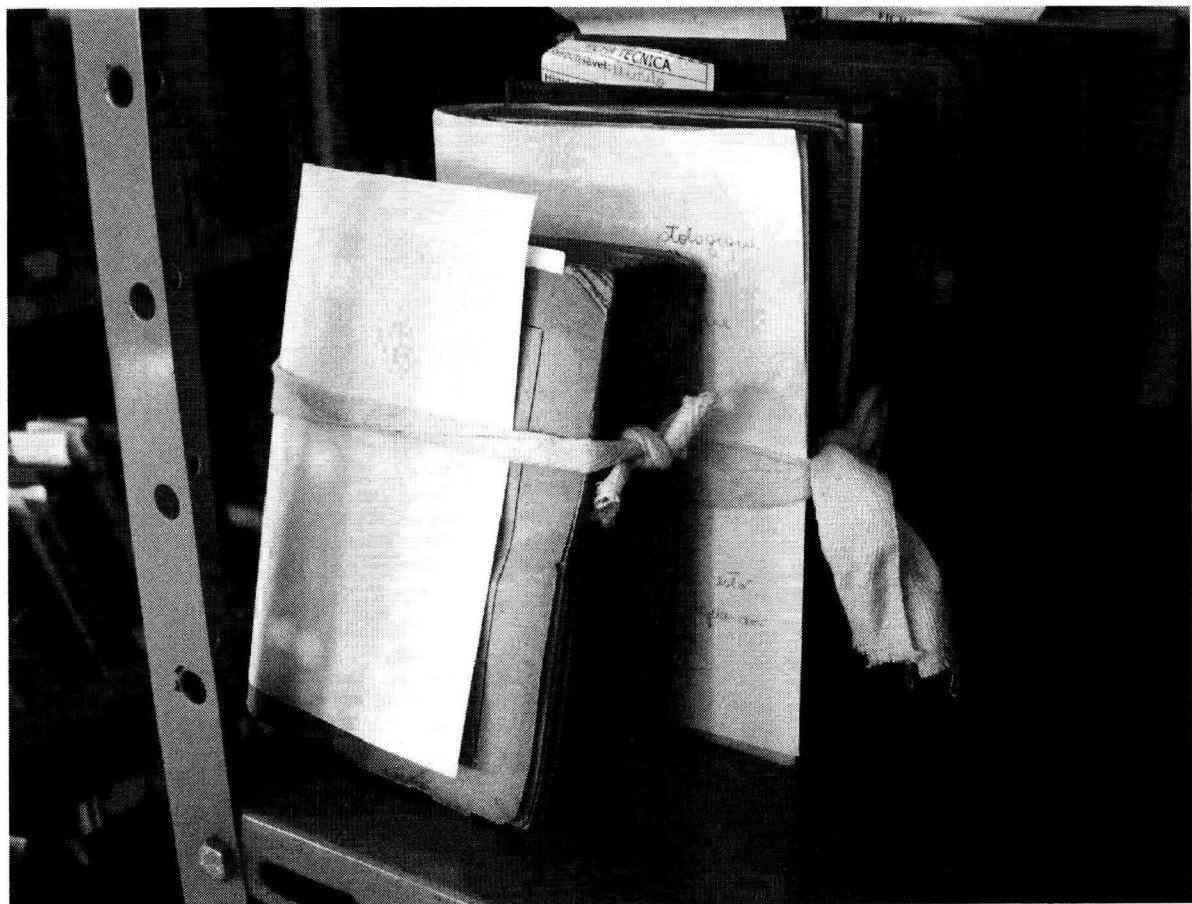


사진 6 : 고서 복원 작업